「인문언어」(Lingua Humanitatis) 7 (2005): 311-333

독일 분단사에 나타난 민족어의 갈등

정동규
(경원대학교)

0. 머리말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이나 주변 관련국들의 정치적 구상과 같은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 볼 때, 전후 독일의 분단은 민족사적 단절과 민족 내적 긴장이라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두 의미는 분단 기간 동안 양독의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갈등 주제가 되었는데, 특히 모든 사회적 행위의 주요한 수단인 동시에 결과인 언어는 상호 이질적 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영토 분단을 넘어서서 민족 분단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비록 학문과 정치 행위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다양한 논쟁을 야기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독일의 문제를 포괄적 주제로 하는 전후 독일 연구가 정치와 사회 변화에 대한 논쟁과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주로 정치와 사회 체제 연구가 중심이 되었던 독일 연구에서 민족어가 논의된 것은 한편으로 정치 행위의 한 부분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언어변화라는 관점에서 전후 독일 민족어의 변화가 언어 외적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독일 민족어의 변화가 정도와 범위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속도에 있어서 분단 반세기 동안

【Keywords】 National Language, Language Change, Language Conflict, Divided Language, Divided Country

소수의 합목적적 의도나 통제를 통해 굴절되는 결과로 나아간 것은 전자와 독일 민족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처럼 전후 상이한 정치, 경제적 체계를 발전시킨 양독에서 민족어는 단순한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행위의 틀 속에서 규정되었고 변화되었다. 따라서 분단기의 민족어 연구는 해당 언어 자체의 구조적 특성 못지않게 분단 상황에서 맞이한 사회적, 정치적 역동성을 고려해야 보다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전후 1945년부터 1990년 사이 독일의 정치적 그리고 영토적 분단을 통해 야기된 독일 민족어의 변화를 당시 독일의 언어 외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제 전후 독일에서 나타난 민족어의 상호 이질적 변화를 새로이 관찰하려는 시도는 언어와 사회변화 사이의 고전적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50년대 힘의 정치와 언어의 정치화

포츠담에서 독일의 무장해제, 탈나치화, 민주주의화, 그리고 산업의 해체라고 하는 전승국의 1945년 합의 이후, 신흥 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3국(미국, 영국, 프랑스)과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낸 소련과의 이념적 갈등은 1949년 독일의 분할을 야기하여, 독일은 영토 분단이라는 민족사적 고통뿐만 아니라 냉전이라고 하는 세계정치사적 적대감을 경험해야 하는 특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분단 직후 양독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그 결과 서방 3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동구권의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동독을 보다 용이하게 서독에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서독 최초의 연방수상인 아데나워는 서구진영의 단결이라는 공격적 정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서독에서는 강한 반공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사회 전반에 나타났으며, 나아가 동독의 지도 이념에 대한 논쟁도 전체주의 개념을 통해 공격적 양상을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주의 논쟁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 주요한 목적이었지, 새로이 형성된 동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서독의 입장에서 동독은 장기간의 생존가능성이 없는 임시기구 나 잠장적인 과도기 현상 정도로 간주되었으므로 - 호칭도 '소련점령지역(SBZ)', '동부 지역', '중부 독일' 등 - 동독의 국가적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모든 합법성은 오로지 서독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서독의 관심영역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소련화의 정도와 동독이 서독에 병합될 때 파생될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독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대부분도 서독의 정치적 구상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을 전개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상호 비교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오로지 서독의 사회적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독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이란 '서독의 긍정적인 질서에 대한 부정적 측면'(Bleek, 1986: 23)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 또는 反-정체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여 자신의 발전은 모두 철저히 긍정적이고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지녔다. 이것은 특히 공적 언어 사용에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자국의 국가체계를 이상화하는 대신 상대방을 악마화 함으로써 대립적 개념을 형성하였다. 법치국가 대 불법정권, 민주 대 독재, 사회적 자유 시장경제 대 공산주의적 통제경제 등.

1949년 양독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양 진영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이한 발전이 진행되어, 새로운 표기가 나타나고 의미적 변화 및 상충이 일어났다. '인민의회, 행동대, 영/유아방(유치원과 유아원을 합친 형태), 지구 전속경찰' 등. 이러한 상호 이질적 언어사용으로 말미암아 양독 사이의 경계가 곧 언어 경계가 될지 모른다는 언급과 함께 언어 분열 및 이질화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는데, 이것은 언어분열이 잠정적인 분단을 장기화하여 통일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언어 문제의 이러한 정치적 이념화 현상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이념적 위상에 일치하는 결과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모든 연구들을 몰아감으로써 50년대 서독에서 시작된 독-독 언어상황에 대한 연구들의 구상과 용어에서는 냉전이라고 하는 이념적 특징이 이미 연구 제목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소련점령

지역에서의 언어변형'(Boree, 1952), '제4제국의 언어'(Fricke, 1952), '동부 강압지역의 언어'(Köhler, 1953), 소비에트독어 - 소비에트化의 희생과 도구로서의 언어'(Koepp, 1955), '독어의 언어분열'(Gaudig, 1958/9), '언어의 분열. 혁명을 주도하는 수단으로서의 공산주의 독어'(Roegele, 1959).

이 연구들에서는 공산주의 선동선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독에서의 언어통제가 독일인들의 정신적, 언어적 이질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상응하여 동독에서의 언어변화에 대해 행해진 비판은 정치적, 논쟁적 특징을 강하게 지녀, 동독의 언어는 '그로테스크하며 호전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변증법적으로 왜곡시키며,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 찬 것'(Fricke, 1952: 1244)으로 불리어졌다. 아울러 동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조어의 경향을 부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히틀러의 제3제국 언어를 비판하는데 사용되던 의학용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언어적 변성, 언어적 질병, 만연 내지 창궐'(Boree, 1952: 23f), '용어상의 감염'(Roegele, 1959: 48) 등. 이와 같이 과거 제3제국의 국가사회주의 언어가 동독에서 존속되고 있다는 비난은 이 당시의 연구에서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심지어 Goegele(1959)에서는 동독의 언어적 왜곡이 국가사회주의를 능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독에서 나타난 언어분열의 책임은 동독의 정치체제로 돌려졌으며, 동독의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은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적 선동선전 언어를 강요하고 언어공동체의 통일성과 독일국민의 공통성을 파괴하고 있다'(Fricke, 1952: 1246)고 비난하였는데, 이에 대한 Köhler의 입장은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다: 소련점령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독일인들에게는 검은 것을 검다거나 흰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않고,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과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모국어을 훼손시킬 것을 강요받고 있다. (Köhler, 1953: 14)

이상과 같이 1950년대 서독에서의 독-독 언어문제에 대한 수용은 정치적, 선동적 목적이 언어학을 압도하여, 서독에서 조차 서독의 언어학이 정신적, 정치적 방어전에 기여했다(Gaudig, 1958/9: 1008)는 평가를 스스로 받았다. 결론적으로 1945년 이후 서독에서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나타난 언어변화에 대

한 자기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하는 언어학적 토대 위에서의 상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언어발전을 부지불식간에 동독의 언어를 변종 또는 이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범으로 규정했으며,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안정화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표에 서독의 언어학은 거의 예외 없이 참여하여 정치 선전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후 동독에서는 1946년 공산당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이 결성되면서, 모든 개인 재산의 사유화와 집단농장화, 화폐와 토지개혁 등이 낡은 시민사회로부터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급격한 사회재편이 이루어졌다. 중립주의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성립된 동독은 정치적으로 명백히 전체독일이라는 주장을 견지하였으므로, 서독은 서부독일의 분단국가로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전체독일에 동독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서독이 자유로운 선거를 독일의 통일적인 국가권력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긴 반면, SED는 과도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간의 정치적 접촉을 쌓아나갈 것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1950년 전독 구성 회의를 제안하였고 1956년 울브리히트(W.Ulbricht)는 독일 연방제를 제안하였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독의 체제 경쟁을 초래하여 서독에서 관철되었던 이분법적 사고가 동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독에서도 1950년대 독-독 언어상황을 다룬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이 연구들은 당시 서독의 연구들에 비해 훨씬 덜 선동적이었고, 언어보호 내지 부분적으로 언어정화라는 성격을 지녔으며, 무엇보다도 모국어의 핵심적 의미를 독일민족의 통일성 유지라는 입장으로 이해했다. 먼저 자신의 언어변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양측이 언어이질화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Weiskopf, 1955: 79)고 보았으며, 심지어 동독의 언어변화를 '黨의 특수어'(Weiskopf, 1955: 125)라고 칭하였다. 국가의 공통적인 의사소통수단인 언어가 단일화되지 않고 분리되며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폐쇄화될 때, 무해한 경우에는 방언이 되지만 고통스런 경우에는 은어가 된다(Klemperer, 1954: 3). 그밖에도 노어의 기계적인 차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며(Kader(간부) < rus. kadrov, Brigadier(작업반장)

< rus. brigadir, Datsche(여름 별장) < rus. datscha, Weiskopf, 1955: 82), 어휘뿐만 아니라 문체상으로도 부풀려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입증해 내다', '早期 달성', '역사적인' 등의 빈번한 사용, Erpenbeck, 1954: 7). 당시 동독의 연구에서는 민족어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유지시키는 요소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언급이 통일이나 체제경쟁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이질화라고 하는 언어적 위협에 직면하여 단호하게 지적되었다. 우리가 독어에 순수함과 고결함을 부여하려는 반면 우리의 적들은 고결하고 명료하며 품위 있고 인간적인 독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휘들을 왜곡시키며 정반대의 의미로 전도시키는 모든 짓거리를 착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독일을 서로 疎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는 모두 독어의 정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국가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해야 하는 소명을 받고 있다(Becher, 1952: 134). 이에 따라 많은 신조어나 차용어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통적 어휘로 분류 가능한 표현들이 새로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아직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대내 정치, 사회적 상황이었으므로 서구 제국주의의 침입을 우려한 나머지 서독의 언어경향을 '언어의 군국주의적 오염, 미국의 언어 침략, 미국주의의 가면을 쓴 침략'(Weiskopf, 1955: 83f) 등으로 비난하였고, 나아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전통으로 치부하였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반쯤은 벗어난 나치의 언어페스트가 그곳에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곳을 지배하는 미국의 파쇼적 사고와 의도에 부응하기 때문이다(Klemperer, 1954: 14). 이와 함께 영미-언어권의 영향이 강하게 거부되었고, 이질화의 책임이 미국과 서독의 정치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국어에 대한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나치와 파쇼적 언어재로 가득 찬 영미-언어적 요소와 심지어 서독의 표현들도 거부되었기 때문에 1951년에서 1956년까지 존속한 동독의 Duden 사전 14판(표제어: 35,600 개)에서는 기재 어휘수가 서독의 14판(표제어: 73,700 개)에 비해 반에도 못 미쳤다. 또한 언어분열이 민족이나 국가분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어와 미어의 분리처럼 동독어와 서독어의 분리 가능성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독어에는 몇몇 문체적, 어휘적 차이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언어적 전통의 고수와 보호를 통해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이 동독 언어연구자들의 희망이었고 동시에 사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50년대 독어 연구에는 정치적 동기가 특징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언어 이질화의 책임은 철저히 상대방에게 전가되었고 상호 언어발전에 대한 비난은 상대방의 정치체제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60년대 체제경쟁과 언어의 이념화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서독의 정치적 논의에서는 내독 접촉의 강화가 불인정 정책 보다 국가의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Bahr는 이것을 '접근을 통한 변화'라고 불렀고,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브란트는 '작은 발걸음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또 아데나워가 물러난 이후 외무성 장관 슈뢰더는 동구권 국가를 겨냥한 '움직임의 정치'를 도입하였고, 1966년 키싱어 주도의 대연정은 서독의 단독대표권에 대한 요구를 상대화시킴으로써 동독과 최초의 접촉을 받아들였으며 이듬해에는 루마니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할슈타인 독트린을 완화하였다. 이어 1969년 10월 사민당(SPD)와 자민당(FDP)의 연정으로 수상에 취임한 브란트는, 동독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입장은 사실상 독일민족이 자신들의 고유한 관심사에 대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 따라, 동독 불인정 정책으로부터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제한적인 협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가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양독이 서로 외국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었고, 여전히 두 국가를 묶는 끈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은 점차 서독 정부의 공식적 언급에서 뒷전에 놓이게 되었다.

60년대 전반기 독-독 언어상황에 대한 서독의 연구는 여전히 반공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고, 연구는 주로 동독어를 분석하는 것에 한정되어 서독에서의 언어변화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동독어가 연구대상으로 진지하게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이 아주 작은 변화일 뿐 연구의 특징은 여전히 이념적 성격을 지녔으며, 언어학은 여전히 이념비판에

서 벗어나지 못하여, Maeder는 동독어를 '병든 언어'로 간주하면서 'SED의 언어통제로 동독어가 노어의 서툰 모방이 될 것'(1964: 22)을 경고하였다. 이 시기 서독어를 표준으로 하여 동독어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는 Moser(1961)이다. 그는 동독어에 나타난 노어 차용어(Kombinat, Natschalnik, Towaritsch, Kolchosbauer, Diversant, Oblonow)와 차용번역어(Volkswirtschaftsplan, Rekonstruktion, Plansoll, Wanderfahne, Kulturhaus), 의미가 변화된 어휘(Neuerer, Pionier, Demokratie, Freiheit), 신조어(Traktorist, Reformist, Machinen-und-Traktoren-Station, Neulehrer, Natopolitiker, Westler), 축약어(VEB, ZK, MdV, HO, Vopo, Trapo, Politbüro) 등을 이질화의 표본으로 삼았고, 나아가 명사의 활용(Alaunes - Alauns)과 매개음의 차이(Anfeuerung - Anfeurung, adelstolz - adelsstolz) 등을 거론하였다.

서독에서의 독-독 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서독식의 구상에 따른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리라고 믿었던 동독의 즉각적인 정치, 경제적 붕괴가 예상과 달리 체제의 안정과 견실한 발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동독을 하나의 학문적 탐구대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관철되어 동독을 사회적 특수상황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특히 60년대 내재적 연구방법론의 대표자인 Richert는 공산주의 체제의 개혁 가능성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전체주의 이론과 달리 동독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받아들였으며(1964: 7), 이에 대해 Ludz가 도달한 결론도 동독의 지배체제를 전체주의 이념으로부터 권위주의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1968: 324). 정치적으로 동독 국가의 인정으로 나아갔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앞서 동독 지도부에 의해 선전된 내독 체제경쟁이 서독 정부에도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학문적 토대 위에서 양독의 상호 비교 연구라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독 측에서는 비교가 양독을 질적으로 동일시한다거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표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비교란 동일시를 의미하지 않고, 자료에 대한 단순한 인용이 독일의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도 않는다(Brandt, 1972: 4f). 이와 같이 연구 관점의 확대

와 이와 관련된 방법론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포함한 독일 연구는 SED의 제한적 정보정책으로 인해 동독 분석에 입각해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동독어에 대한 연구도 공적 출판물이나 언론 그리고 사전 등을 통한 공적 언어 연구로 한정되는 경향을 지녔다.

60년대 서독에서의 독-독 언어연구는 Dieckmann에 의해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갔다. 먼저 그는 당시까지 서독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는 견해에 따라 독어 분열에 대한 격정적인 비난이나 일방적인 책임전가는 언어학의 과제일 수 없고 언어학에 결코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고 보았고, 60년대 대부분의 서독 연구에서 Duden을 비교의 토대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이때 동독의 언어변화를 언어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Duden이 양독에서 정치적 언어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서독의 Duden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해서 동독에 기원을 두고 있는 빈번한 언어사용을 기재하기 않았다(Dieckmann, 1967: 146)는 것이다. 한편 맑스주의의 핵심어휘에 대한 문제에서도 계급, 사유재산,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등의 어휘들이 SED에 의한 이질화 목록에 설정되어 정치적 내지는 언어적 분단의 현상들로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어휘들이 이미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는 것이다(Dieckmann, 1967: 151). 다음으로는 제3제국의 언어유산과 관련된 것이 지적되었다. 동독의 언어에서는 군사적 문체, 최상급의 빈번한 사용, 그리고 민족이란 표현의 강조 등이 민족사회주의 언어 전통에 대한 명확한 유사성으로 지적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산들은 서독에서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Korlen, 1969: 18)고 보았다.

이와 같이 60년대까지 취급되었던 언어분열에 대한 주제는 서독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상존하는 언어적 공통성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어, "영토분단이 언어분단을 초래하는가?"(Korlen, 1967)와 "하나의 독일에 두 민족어?"(Reich, 1970)라는 주제는 모두 부정적으로 대답되었다. Dieckmann도 양독 사이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이 언

어적 문제 보다 양독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1969: 69)

한편 베를린 장벽 설치와 함께 맞이한 60년대 동독 지도부는 통일을 장기간의 과제로 보는 입장을 취하여, 사회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독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목표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헌법 - 독일은 분리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 - 으로부터 벗어나 동독은 독일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동독과 그 주민들은 독일의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양독의 점진적 접근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토대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새로이 나타났다.

장벽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탈출을 차단한 동독은 脫스탈린 주의와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수행하였다. 먼저 스탈린의 개인숭배로부터 벗어나는 표시로 지명을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 1963년 11월 Stalinstadt가 Eisenhüttenstadt, 베를린의 Stalinallee가 Karl-Marx-Allee 또는 Frankfurter Allee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신경제체제(NÖS)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계획경제 체제에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대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바로 이것이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이 곧 붕괴하리라는 기대를 환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반대로 동독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창조적 능력이 자본주의를 능가하여 독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갖도록 하였다.

50년대 언어분열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동독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분열에 대한 서독의 비난들을 단호하게 반박하였다. 더 이상 동독어는 당의 특수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동독 주민 모두의 필수적인 표현수단이며, 동독어는 새로운 사회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에서의 언어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발전적인 것이었다 (Ihlenberg, 1964: 374). 즉 상이한 사회질서를 표시하고자 하는 신조어나 의미의 변화는 사회적 욕구이며 현실의 정당한 반영으로 간주되었고, 대립된 두 체제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경쟁과 사회주의의 발전법칙에 맞추어 동독의 언어변화가 정당화되었다. 언어의 통일은 사고방식의 통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고의 통일은 삶의 방식의 통일로부터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발전에 있어서도 단지 새로운 삶에 적합한 것만이 미래를 지니게 된다(Höppner, 1963: 584). 아울러 Höppner는 동독어의 내용적 의미변화의 당위성을 사회주의 사회에 의한 시민사회의 해체 과정에서 찾았다. 동독어는 사회주의를 통해 자본주의가 해체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1963: 584). 그에 따르면 언어문제는 일차적으로 국가분열이 아니라 현존하는 계급적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 소통상의 문제도 서독의 지배계급에 의한 오용 내지 왜곡의 결과였다. 예를 들어 서독의 '자결'이란 다름 아닌 '반동혁명'이고, '통일'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합병'이며, '사회파트너'는 자본가 중심의 개념으로 계급적 대립을 위장한 것이었다. 또 Ihlenberg은 양 Duden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어의 통일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었다. 신조어의 형성은 단지 주변적 현상일 뿐이며, 외래어와 차용표현들도 언어통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지니지 못한다(1964: 384). 한편 언어통제에 대한 대답은 Gernentz가 맡았다. 그에 의하면 언어통제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하는 것으로 통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발전에 대한 목적이 중요하다. 동독의 언어통제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해명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사회주의적 당성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서독에서는 외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도로 세련된 심리적 방법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중류층 사회, 기회균등, 중부 독일, 전방위 등.(1967: 465) 이상과 같은 다양한 논쟁의 저변에는 언어를 체제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동독 지도부의 의도가 놓여 있었으므로, 동독의 연구에서는 정치성의 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962년 SED 중앙위 총회에 따르면, 비록 독어학의 대상이 본질상 계급에 속박되지 않을지라도 사회적 요구는 사회주의의 구축과 실천이라는데 있기 때문에, 전국민적 표준어란 서독 제국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투쟁은 물론이고 평화의 이념과 사회주의의 선전에 있어서 대중을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Weimarer Beiträge, 8, 재인용)이 되어야 했다.

3. 70년대 분할정책과 민족어의 분열

70년대 독일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미 60년대 후반기에 준비되었다. 서독에서는 1966년 대연정이 형성됨으로써 그동안 할슈타인 독트린으로 인해 거부되었던 동독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벌써 1967년 행정부 차원에서는 동독이 공식 명칭인 DDR로 지칭됨으로써 서독 정치에서 긴장해소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어 1970년 동구권 조약들이 소련과 폴란드와 관계개선에 기여했다면, 1972년 교통조약과 특히 같은 해 독-독 기본조약은 양독의 긴장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이 동등한 자격의 토대 위에서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었지만, 서독은 하나의 독일 민족국가 내에서 내독적 관계의 성립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족이란 분열된 독일을 묶는 끈이며, 공통적인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국가와 사회질서 이상의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이라는 민족국가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하리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원한다면 동독도 동독의 헌법에 따라 이 독일국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Brandt, 1972: 55f).

앞서 Dieckmann(1969)으로 대표되는 서독 언어학자들의 점증하는 방법론적 자의식과 자기 비판적 성찰이 있은 후, 연구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70년대가 시작되었다(1970년 12월, 만하임 심포지엄). 특히 Dieckmann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모임에서는 언어학에 이념적 요소가 침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학문과의 상호 공동 작업을 넓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사회학의 한 분야인 이념비판이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언어학의 과제는 이념적 사고와 발화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데 있었으므로(Kofler, 1970 참고), 서독에서의 언어발전이 더 이상 동독의 언어변화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었고 언어분열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나 논쟁적 비난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가 틀렸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학문적 구상이 실질적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동독 지도부의 제한적 정보정책으로 말미암아 독-독 언어비교를 위한 자료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사회학적 방법론을 동독에 적용할 환경이 마련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연구 관점의 확대와 방법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독-독 언어 연구에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언어연구는 침체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서독학자들의 딜레마는 1989년 정치적 붕괴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동독은 독일문제에 관해 결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동안 SED 지도부가 긴장해소와 통일을 공적 목표로 선전했다면, 이제 그들은 60년대 말 서독의 대연정 시기를 맞이하여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적대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입장도 단호한 변화를 보여, 독일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던 견해를 포기하는 '反-全獨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1970년 울브리히트는 SED 중앙위 13차 회의에서 그동안 양독을 하나의 민족 내지 독일국가로 유지시키는 요소로 간주되던 독어의 공통성에 대한 견해마저도 부정하였다. 과거에 유지되었던 언어의 공통성조차 해체되었다. 인본주의에 가득 찼던 괴테, 쉴러, 레싱, 그리고 맑스와 엥엘스의 전통적인 독어와, 제국주의에 의해 오염되고 자본주의적 독점 출판사들에 의해 조작된 서독의 언어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Neues Deutschland, 16.06.1970: 4). 1971년 5월 SED 중앙위 16차 회의에서 울브리히트 후임으로 호네커가 선출된 이후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공동체를 중심으로 소련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가 강조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재이념화 과정이 추구되어 맑스-레닌주의의 절대성과 계급투쟁의 필연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1972년 독-독 기본조약으로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통해 국가의 통일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1974년 동독의 헌법개정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삭제되고 통일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기되었다. 동독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에 따라 양독은 질적으로 상이한 역사적 유형의 국가라는 의식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민족의 규정에 양독의 상이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서독은 언어, 역사, 문화의 공통성이 민족 개념의 구성적 요소인 반면, 동독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념적 관계가 핵심적 요소가 되어 공식적으로 서독을 제국주의적 외국으로 표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SED의 분할정책은 언어적으로 사전작업을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만들어, 1970년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4권에서는 종전의 1-3권에 비해 양독의 어휘적 차이와 계급투쟁의 성격이 강조되어, Agi(tation)와 Pro(paganda)는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이념에 입각할 때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며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런 이념에 반대하는 언어 정책적 조치들은 모두 언어조작 내지는 통제라고 불리었다(Bock/Harnisch, 1973: 523). 한편 민족어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양독어는 독어의 국가적 변이형(Lötzsch, 1973: 500), 자본주의 사회의 민족어와 사회주의 사회의 민족어(Schmidt, 1973: 505). Lerchner는 독어 사용 국가들의 언어체계 상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동독 표준어의 명백한 변화를 강조하였는데, 이 변화는 언어통제나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언어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독일의 통일적 민족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독어는 4개의 독립국가에서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민족어의 변이형에 대한 추상적이고 역사적으로 규정된 통합적 명칭을 의미한다(1974: 263). 4-변이형說로 불리는 변이형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80년대 언어연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70년대 서독의 언어연구가 방법론적 발전과 달리 양적으로 퇴조한 반면, 동독에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 분할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독에 대한 명백한 거리감을 유지하는데 자유로워졌고 다른 한편으로 계급의식이 양독의 언어 차이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유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동독어의 변화를 옹호하거나 서독어의 변화를 비난하는데 보다 당당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먼저 많은 신조어나 노어 차용은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상응하여 이념적 어휘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때 소련이 모범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았다(Bonzio, 1973 참고). 공통된 민족어의 상실은 정치, 경제, 문화적 상이한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는 서독어와의 상호 이질적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간주하였다(Schmidt, 1972 참고). 사회주의 독일 민족어의 위상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

급 만이 독일문화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자이며 그들만이 위선적 부르주아 언어의 파멸적 언어로부터 모국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의 의사전달 욕구와 표현 욕구에 상응하는 창조적 언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급 투쟁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애국심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속에 있는 독일 민족어의 보호와 장려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국경을 침입하는 자와 우리의 경제를 유린하는 자를 방어하고 있듯이 적대적 사고의 침입과 황폐화로부터 우리의 언어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하다 (Kahn, 1974: 1668). 이에 상응하여 동독에서는 17, 8세기의 언어협회를 연상케 하는 어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영미어의 광범위한 유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Team, Bestseller, Teenager, Party, Klub, Job, Make-up, global, catchen, quizzen, Intershop, Delikat-Laden, Broiler.

이상과 같이 70년대 양독의 언어 연구에서는 정반대되는 입장이 나타났다. 서독에서는 언어분열이라는 주제가 포기되고 언어의 통일성이 강조된 반면, 동독에서는 민족 개념의 새로운 정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부각하여 민족어의 해체를 통한 독어의 상호 개별적 발전이라는 견해가 단정적으로 나타났다.

4. 80년대 언어의 변이형 논쟁

1982년 이후 콜 정부는 종래의 독일정책을 다소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양독 사이의 조약정치가 강화되었다. 이 정책에서 콜 정부는 독일문제를 전유럽적 관심사로 편입시키려는 입장을 취하여 서유럽의 통합도 독일통일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부분적인 조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독일통일에 대한 문제는 서독 내에서 상이한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80년대 정치논쟁에서 일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일정책을 옹호하였으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대자들은 철저하게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1989년 여론조사에 의하면(Bauer, 1993 참고), 조사대상의 78%가 독일인들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대답하였으나, 독일국가가

동독과 서독을 모두 포함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70-80%의 사람들은 통일이 곧 달성할 수 없는 아주 먼 장기간의 목표일 뿐이라고 대답한 반면, 20세기에 통일이 실현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8%에 불과하였다.

80년대 양독의 언어 연구에서는 독어의 변이형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70년대 초 두 개의 독일국가라는 정치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서독의 국가개념을 반박하고 통일적 독일 민족어의 거부를 위해 언급된 Lerchner의 4-변이형說(동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은 Schmidt에 의해 서독어를 부르주아의 언어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변이형(1978: 7)으로 규정된 이후 양독에 변이형 논쟁을 이끌었다. 기본적으로 양독의 언어를 하나의 변이형(3-변이형說) 또는 두 개의 변이형(4-변이형說) 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변이형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달린 것이지만, 이 논쟁의 학문적 의의는 민족이나 국가의 장래와 같은 국가적 문제와 얼마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독에서는 4-변이형說이 시종일관 주장되었고, 서독에서는 이 논쟁을 종래에 이루어진 언어 연구의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동독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Moser(1985)는 언어 구조적 차이가 아니라 기능이나 사용과 결부된 기준, 즉 어휘와 의미적 차이에 입각하여 국가변이형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독어는 본토의 독어 변이형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변이형이 있고, 특히 전자의 경우에도 서독변이형이 동독의 기준으로 취급되었다. 소위 단일중심주의로 지칭되는 이 견해는 서독어가 다른 변이형을 판정하는 규범이 되며 원래의 독어가 서독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패권적 주장을 암암리에 지니고 있어서 동독은 물론 서독에서도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반면 1978년 Kloss에 의해 제안된 복수중심주의에서는 본토독어라는 개념이 거부되면서 복수적 언어문화가 받아들여졌다. 이 언어관에 따르면 상이한 변이형들은 동등한 자격을 지녀 상호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 지위를 지니게 되므로, 표준어도 각 독어사용국가에서 복수중심적, 즉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여러 종류를 일컫는 개념이 되었다. 이 견해는 대부분의 서독학자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동독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주장되어(Fleischer, 1989 참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5. 변혁기의 민족어

변혁기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를 나타낸 곳은 동독의 공적 언어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언어적 폭력을 향유하던 언론이었다. 언론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절대적 권력과 존엄에 가득 찬 지시가 사라지자 그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내용과 찬사도 부질없이 사라졌으며, 경제적 결핍도 선동적 표현이나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감추지 않았다. 천편일률적으로 사용되던 '다방면의', '포괄적인', '구체적인', '복합적인', '광대한' 등의 수식어는 '만약', '그러나', '한편', '아마도' 등으로 바뀌 표현하였다.(Hellmann, 1990: 267)

Oschlies의 언급대로 이제 동독 주민들도 자유롭고 진실된 자신들의 고유한 단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 놓았던 댐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언어를 재발견하였기 때문에, 언어는 동독의 변혁과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혁명을 실행하는 요소가 되었다.(1990; 9) 이와 반대로 혁명이 언어를 해방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현실이 그 현실에 대한 언어적 재생산 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지만, 변혁기 동독에서는 조직화된 무력이나 전국적인 단체의 저항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동독 주민 하나하나의 입이 주도적인 저항 무기나 압력 수단이 되었다. 의식의 통제를 목표한 언어통제가 제거된 이상 동독 주민들의 언어생활은 이념과 공적 언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자유, 인간의 품위, 복수주의, 법치국가적 상태, 환경생태학적 재건 등이 핵심적 어휘가 되었다.(Bauer, 1993: 19)

소위 변혁기의 언어로 지칭되는 통일 시기의 언어적 특징은 특히 대중적 선언문이나 격문, 구호 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니치에 갇혀 있던 동독 주민의 언어적 욕구는 이제 불가침의 사회주의 이념이나 SED 지도부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준비가 되었으며 공개적 토론이나 대중운동을 통해 공론화시켜 나갔다. SED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는 똥이다, 모든 빨갱이

는 꺼져라', '반대 없이는 어떤 민주주의도 없다', 'SED는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용했을 뿐이다', '우리가 주인이니 너희들은 가라', '새로운 정당과 자유로운 선거', 복수적 민주주의와 여행 및 의사표시 자유에 대한 요구는 'SED 혼자여서는 안 된다', ' 비자 없이 피사로!', '하와이까지 비자 없이!',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위하여!'로 나타났으며, 호네커에 이어 사태 수습을 위해 등장한 당서기장 크렌츠에 대해서는 '에곤 크렌츠, 우리는 당신 편이 아니야!', '에곤! 우리는 계획이 있다네 '등으로 응수하였다.(Buckhardt/Fritzsche, 1992: 47ff)

분단 직후 동독에서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많은 새로운 어휘가 발생한 것처럼, 통일시기 동독의 사회적 변화과정의 역동성은 언어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후자의 시기에는 동독에서의 언어적 동요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행렬은 '도망가 버리다', '넘어가다', '월경자(오늘날 우리의 탈북자에 해당함)', '잔류자', '도주의 물결', '대사관 도주자/점령자' 등으로 표현되었고,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는다'는 구호와 함께 '반사회주의 분자, 망나니, 반혁명분자, 반국가분자' 등의 용어를 통한 언어통제나 여론조정이 부질없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SED와 다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동독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도 '스탈린주의', '명령적 사회주의', '병영 사회주의', '맑스-레닌 독단론' 등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장벽 붕괴와 더불어 '환영금' 또는 '방문금', '환전', '소비 러시', '트라비 물결' 등이 나타났다.(Bauer, 1993: 146ff) 한편 종래 각광받던 '당, 동지, 계획, 진보, 업적/성과물, 과업, 조직화, 설득작업, 심각한/철저한, 다방면의, 독창적인, 항시적인, 완전한' 등의 공적, 의식적 어휘가 회피되었으며, 이제 '반파쇼 보호벽'은 '장벽', '애로'는 '결핍/재정상의 난맥', '계획 초과 물품'은 '재고', '공화국 도피/인신매매'는 '이주/피난물결/탈출', '망나니/교란자/원흉'은 '시위자', '반혁명분자/반사회주의분자/반역자'는 '반대자' 등으로 표현되었다.(Polenz, 1993: 132) 이러한 현상은 서독어가 동독으로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독 주민들은 상이한 호칭 - 동독 주민은 'Ostdeutsche/Ostler/Ossis/Zonis/Wossis/Jammerossis', 서독 주민은

'Westler/Bürger der Altbundesländer/Wessis/Bundis/Wesserwessis' - 이나 '우리/너희 wir/ihr, bei uns/bei euch' 등의 차별적 표현을 통해 자만심이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양독의 통일적 언어 사용에 대한 과신과 이질화에 대한 과소평가를 견지해온 70년대 이후의 서독 언어학 연구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이후 통일과정에서 이질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오래전에 주장되었던 민족을 하나로 묶는 끈으로서의 민족어에 대한 믿음을 사회적 목표로 재설정하려는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목받을 만하다.

5. 맺는말

전후 양독에서 나타난 언어의 정치 내지 이념의 도구화는 합목적적 언어사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 시기 양독의 언어에 각각의 지배계층에 의해 주도된 정치적, 이념적 요구를 포함한 온갖 사회적 요구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언어학적 연구조차도 냉전과 체제경쟁 또는 이념화의 도구로 정치화 되었던 것이 분단 기간 중 독일의 양측에서 이루어진 정치상황의 변화를 언어와 관련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언어의 자연발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언어와 사회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규정하는데 있어서 언어와 사회의 개입 정도를 확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서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정치적 내지 이념적 상황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당대의 언어변화를 주도하려는 인위적 시도는 경계되어야 한다. 언어가 다수의 공동재가 되지 못하고 소수 지배계층의 독점적 이익에 기여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방치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개입이 바로 몇몇 이념적 지배자에 의해 사회적 다수를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단 기간의 동서독 모두에서 고통스럽게 관찰하였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사회를 지배하느니!

인용문헌

Bauer, D. *Das sprachliche Ost-West-Problem*, Peter Lang, Frankfurt am Main/Berlin/ NY/Paris, 1993.

Becher, J.R. "Unsere Sprache", in: *Verteidigung der Poesie*, Berlin: Aufbau-Verlag, 129-134 (1952).

Besch, W. u.a., *Sprachgeschichte*, Berlin/NY, 1985.

Bleek, W. "Die Entwicklung des zwischenstaatlichen Systemvergleichs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Wissenschaft", in: *Probleme systemvergleichender Betrachtung*, 15-54 (1986).

Bock, R./H.Harnisch. "Zu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in der DDR und in der BRD", in: *ZPSK*, 26, H.5, 511-532 (1973).

Bonzio, W. "Zu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in der DDR", in: *ZPSK*, Jg.24, 220-3 (1971).

Boree, K.F. "Die Sprachentartung in der Sowjetzone", in: *SBZ- Archiv*, Jg.3, H.2, 23f (1952).

Brandt, W. "Der Berichte zur Lage der Nation vom 14. Januar 1970", in: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55-65 (1972).

Buckhardt, A./Fritzsche, K.P. *Sprache im Umbruch*, W d G, Berlin/NY, 1992.

Dieckmann, W. "Kritische Bemerkungen zum sprachlichen Ost-West Problem",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Jg.23, 136-65 (1967).

Dieckmann, W. *Sprache in der Politik*, Heidelberg, 1969.

Dieckmann, W. *Politische Sprache, politische Kommunikation*, Heidelberg, 1981.

Erpenbeck, F. "Schreiben wir Deutsch!", in: *Neue Deutsche Presse*, Jg.8, H.4, 6-8 (1954).

Fleischer, W. "Entwicklungstendenzen im Deutschen der DDR - der Wortschatz", in: *Theoretische und praktische Fragen der Sprachkultur*, B.Techtmeier(h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Zentral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Bd.170), 171-190 (1987).

Fleischer, W. "Zur Situation der deutschen Sprache heute", in: *ZPSK*, Jg.42, Akademie Verlag, Berlin, 435-442 (1989).

Fricke, K.W. "Die Sprache des Vierten Reichs", in: *Deutsche Rundschau*, Jg.78, H.12, 243-6 (1952).

Gaudig, R. "Die deutsche Sprachspaltung", in: *Neue deutsche Hefte*, Jg.5, 1008-14 (1958/9).

Gernentz, H.J. "Zum Problem der Differenzierung der deutschen Sprache i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Weimarer Beiträge*, Jg.13, 463-8 (1967).

Hellmann, M.W. "DDR-Sprachgebrauch nach der Wende - eine erste Bestandsaufnahme", in: *Muttersprache* 100, 266-286 (1990).

Höppner, J. "Über die deutsche Sprache und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in: *Weimarer Beiträge* 9, H.4, 576-585 (1963).

Ihlenberg, K.H. "Entwicklungstendenzen des Wortschatzes i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Weimarer Beiträge*, Jg.10, 372-397 (1964).

Kahn, S. "Nation und Sprache", in: *Die Weltbühne*, Jg.29, 31. Dez. 1665-8 (1974).

Klemperer, V. *Zur gegenwärtigen Sprachsituation in Deutschland*, Aufbau-Verlag, Berlin, 1954.

Kofler, L. *Stalinismus und Bürokratie*, Neuwied, 1970.

Köhler, A. "Deutsche Sprache in östlicher Zwangsjacke", Vortrag im deutschen Sprachverein, Berlin am 4. Dez. 1953.

Koepp, F. "Sowjetdeutsch - Die Sprache als Opfer und Werkzeuge der Sowjetsierung", in: *Akademische Blätter*, Jg.57, 41-6 (1955).

Lerchner, G. "Zur Spezifik der Gebrauchsweise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DDR und ihre gesellschaftliche Determination", in: *DaF*, Jg.11, 259-65 (1974).

Lötzsch, R. "Einige Bemerkungen zu den Termini Nationalitätssprache und nationalsprache", in: *ZPSK*, Jg.26, Berlin, 492-500 (1973).

Maeder, H. "Sprache und Totalitärismus", in: Aueler Protokol, 13-23 (1964).

Moser, H. "Die Sprache im geteilten Deutschland", in: *Wirkendes Wort*, 11/1, 1-21 (1961).

Moser, H.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Sprache seit 1945", in: W.Besch,u.a.(hg.), 1678-1707 (1985).

Oschlies, W. *Wir sind das Volk*, Köln/Wien, 1990.

Polenz, P.v. "Die Sprachrevolte in der DDR im Herbst 1989",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1, WdG, Berlin, 127-149 (1993).

Roegele, O.B. "Die Spaltung der Sprache. Das kommunistische Deutsch als Führungsmittel", in: *Die politische Meinung*, Jg.4, 48-60 (1959).

Schlosser, H.D. *Kommunikationsbedingen und Alltagssprache in der ehemaligen DDR*, Hamburg, 1991.

Schlußwort auf der 13. Tagung des Zentralkomitees der SED, 1970, in: *Neues Deutschland*, 16.06. 1970.

Schmidt, W. "Theoretische und praktische Aspekte des Muttersprachunterrichts in der

sozialistischen Schule", in: *ZPSK* 25, 5-78 (1972).
Schmidt, J. "Zum Verhältnis von Geschichte und Sprache", in: *ZPSK* 26, 501-510 (1973).
Weiskopf, F.C. "'Ostdeutsch' und 'Westdeutsch' oder über die Gefahr der Sprachentfremdung", in: *Neue Deutsche Literatur*, Jg.3, H.7, 79-88 (1955).
Weiskopf, F.C. *Verteidigung der deutschen Sprache*, Aufbau-Verlag, Berlin, 1960.

[Abstract]

National Language Conflict Reflected in the Divided Germany

Dong Gyu Chung
(Kyungwon University)

The national language in the divided Germany has undergone changes that are not simply 'linguistic' in nature but reflect on the diverse social activiti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ccordingly, a study of the German language in the process of the division would necessarily involve looking into the socio-political dynamics of the period, in tandem with the study of the linguistic structure per se. This paper deals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of Germany during the period of 1945 through 1990 and the issues of territorial devision during that period with the view to clarifying the extra-linguistic factors behind the changes of the country's national language. This mode of explaining the heterogeneous linguistic changes that characterize post-war German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classical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nguistic changes and social ones in a new light.

접 수 일 : 2005년 4월 29일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5월 20일
재 심 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의)